3000여 포교사, 팔관재계로 전법원력 새기다

9월 12~13일 장성 백양사서
제22회 팔관재계수계법회
제31회 포교사 품수식 봉행
포교사 364명 품수…철야정진
진우 스님 "포교사 위상 제고"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는 9월 12~13일 제22회 팔관재계수계법회 및 제31회 신규 포교사 품수식, 제19 · 20회 전문포교사 품수식을 장성 백양사에서 봉행했다.

전국의 포교사 3000여 명이 장성 백양사에 모여 팔관재계를 수지하고 전법과 수행의 원력을 새롭게 다졌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가 주최하고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강의수)이 주관한 '제22회 팔관재계수계법회 및 제31회 신규 포교사 품수식, 제19·20회 전문포교사 품수식'은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무박2일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에서 봉행됐다.

입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 각 교구본사 포교국장과 백양사 소임자 스님, 강의수 포교사단장을 비롯한 각 지역단장과 전국 포교사 3000여 명이 참석했다.

팔관재계는 재가불자가 하루 낮과 밤 동안 출가수행자의 위의를 따라 여덟 가지 계율을 지키며 탐욕과 번뇌를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수행이다. 포교사단은 팔관재계를 통해 지계와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전법 현장에서 실천할 보살행의 원력을 다져왔다.

12일 오후 백양사 성보박물관 주변 특설무대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직접 법석에 올라 포교사들의 전법활동을 격려하고 종단 차원에서 포교사들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앞으로 포교사들의 위상을 높이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출가자와 신도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포교사들이 스님과 재가불자를 잇고 지역의 포교현장을 지탱하는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팔관재계의 수행적 의미를 계·정·혜 삼학과 탐·진·치 삼독의 극복에서 찾았다. 진우 스님은 "계를 지키는 것은 자신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일으키는 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만나고 팔관재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며 "계를 받는 것을 힘들게 여기기보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포교사들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부처님의 법을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무 스님은 개회사에서 "계율은 함께 사는 지혜이며 개인과 공동체를 지켜주는 튼튼한 울타리"라며 "전국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이 지계의 인연을 가슴에 품고 실천하는 자비의 보살행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데 더욱 큰 신뢰를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교사들은 이어 팔관재계 수계식에서 참회와 연비, 귀의, 선계상 등을 거쳐 계를 수지했다. 전계사로 법좌에 오른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이 법문했으며, 포교사단장이 대표로 계첩을 받았다.

수계법회 이후에도 수행정진은 밤새 이어졌다. 정무 스님의 '계율·간경·염불·참선·보살행'을 주제로 한 불교 5대 수행법 연수특강에 이어 포교사의 다짐과 백양사 소개가 진행됐다. 자정부터는 백양사 일원을 왕복 7km 걷는 선명상에 나섰으며, 새벽까지 금강경 독송과 철야정진, 새벽예불을 이어갔다.

13일 새벽 포교사들은 사홍서원과 함께 밤샘 정진을 회향했다.

기자칼럼

초선 5명, 비구니 종회 변화의 신호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에서 활동할 비구니 종회의원 추천후보 10명이 확정됐다. 전국비구니회는 9월 14일 제4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학·수행, 포교, 복지, 행정, 사회·문화 등 5개 분야에서 10명을 선출했다.

결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현역과 초선의 조합이다. 현역 의원 5명이 다시 이름을 올린 가운데 새로운 얼굴 5명이 중앙종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절반이 초선이라는 사실은 세대교체 의미를 넘어선다. 종단의 현안을 바라보는 시선과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의정활동의 우선순위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한다.

현역 의원들에게는 길게는 8년, 짧게는 4년의 경험이 있다. 중앙종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종법 개정과 예산 심의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비구니 승가의 현안을 종단의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경험이다.

초선 의원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새로운 시선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행·포교·복지의 변화, 젊은 세대와의 접점, 사회·문화 영역에서 불교가 마주한 과제를 전달하는 역할이다. 특히 비구니 승가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종단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물론 초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의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역과 초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종단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다. 비구니 참종권 확대도 마찬가지다. 이는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제도와 관행을 함께 살피며 풀어가야 할 제도적 과제다. 비구니회가 선출 과정에서 참종권 확대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과제의 연장선일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중앙종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현장의 요구를 어떤 의제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있다. 특히 초선 5명에게는 '영파워'에 대한 기대가 따른다. 젊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이유는 아니지만 새로운 시선은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던 현안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5명의 초선 후보가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5명의 현역이 경험과 연속성을 뒷받침한다면 이번 구성은 세대교체와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선출에서 보여준 변화의 가능성이 비구니 참종권 확대의 다음 장을 열 수 있길 기대한다.



임은호 편집국 부장

2026 명상 콘퍼런스…AI시대 명상 역할 모색

동국대 종학연구소 17일 개막식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일환
국내외 석학 8명 '명상' 주제발표



동국대 종학연구소는 9월 17일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 개막식을 개최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 전반을 바꾸는 시대에 선명상이 지닌 인간 내면의 성찰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9월 17일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202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대주제로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 개막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일감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선명상의 가치를 강조했다. 스님은 "선명상은 오랜 불교 수행의 전통 속에서 마음을 밝히고 삶의 가치를 꿰뚫는 위대한 지혜로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삶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실천적 도구로 널리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번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국내외의 다채로운 지혜와 경험을 교류하며 명상의 참된 가치를 깊이 성찰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돈관 스님은 격려사에서 "불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이어온 동국대는 엑스포를 통해 전통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나아가 한국의 명상문화가 세계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9월 18일까지 이어진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석학과 명상 전문가 8명이 기술과학시대에서 선명상의 위치와 역할,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콘퍼런스는 수불 스님의 'AI시대, 왜 다시 간화선인가' 기조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시대에서 선명상'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양자물리학 석학인 미나스 카파토스 채프먼대 전산물리학 석좌교수는 '마음의 본질'을, 세계적인 율학 전문가인 사사키 시즈카 하나조노대 특별교수는 'AI 사회에서의 불교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다섯 차례 발표가 이어졌다. 재단법인 행복마을 회주 용타 스님은 '불교과 해오(解悟)주의'를, 방글라데시 가야나사라나 불교산림사원 주지이자 비폭력 평화운동가인 사라낭까르 스님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내면의 평화 구축-명상과 자비의 역할'을 발표했다.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툽텐 텐다르 교수는 '대학생을 위한 자비 교육의 효과'를, 안희영 한국MBSR연구소장은 '한국 명상이 나아갈 길을 묻다-전통 불교 명상과 현대 마음챙김의 대화'를 발표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는 '담마 웰니스-불확실성 시대, 불교와 웰니스가 함께 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제로 불교와 웰니스의 접점을 다뤘다. 신중일 기자

〈명상 콘퍼런스 차주 상보〉

"사찰림, 산림복지 거점으로"

9월 16일, 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산림복지 서비스 활성화 포럼



사찰림을 산림복지 자원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휴양과 치유, 교육의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대표이사 원명 스님)가 9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사찰림 기반 산림복지 서비스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하시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장〈사진〉은 사찰림의 산림복지 자원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산림복지는 산림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치유·교육·휴양·문화·레포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하 과장은 "생명다양성 등 자연 가치의 원형이 보전돼 있는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사람과 만나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숲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치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산림복지 서비스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기보다 사찰이 갖추고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사찰림의 장점으로 꼽은 하 과장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고민하면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활용 모델로는 '사찰림 산림치유 템플스테이' '생명존중 산림교육' '무장애 숲길' 등이 제시됐다.

사찰림 산림치유 템플스테이는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숲속 행선·음향 치유·요가 등으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생명존중 산림교육은 숲의 모든 생명이 연결돼 있다는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벌레 밟지 않기, 고목과 다층 식생 관찰하기 등의 활동으로 생태적 가치를 배울 수 있게 구성했다. 무장애 숲길은 이동 약자도 숲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경사도 8% 이하 친환경 데크길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과제로 △명상, 다도 등 산림치유 융합 △민·관·종단 간 거버넌스 구축 △사회서비스 연계 △전문인력 양성 △ESG 및 지역 상생 경제 지원 등을 제안했다.

사찰림을 의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하 과장은 "영국과 캐나다에는 의사가 약물 처방 대신 지역사회 숲이나 사찰 등 비의료 자원을 연계해 마음을 치유하는 제도가 있다"며 "산림치유 의료보험화를 장기 과제로 두고, 복지 예산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희 기자

아프리카 출신 첫 사미 탄생

9월 13일, 사미·사미니 교육 회향
33명 이수·5급 승가고시 통과
보리가람 덕효 스님 사미계 수지



행자에서 수행자의 길에 첫발을 내디딘 예비 스님들이 14일간의 수계교육을 마치고 승가의 일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불교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사미가 탄생했다.

조계종 교육부(부장 유정 스님)는 9월 13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71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식을 봉행했다. 14일간 계율, 불교 교학, 수행 등을 익히며 출가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다진 33명이 과정을 이수하고 5급 승가고시를 거쳐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했다.

회향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부장 유정 스님이 대독한 회향사에서 계·정·혜 삼학을 고르게 닦아 불법의 정맥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이번 수계교육에서 탄자니아 출신 덕효 스님이 주목을 받았다. 덕효 스님은 조계종이 탄자니아에 설립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에서 공부한 졸업생이다. 학교 법당에서 처음 불교를 접한 스님은 한국 스님들의 가르침을 인연으로 출가를 발원했으며 이후 한국어와 불교를 배우며 수행자의 길을 준비해 왔다.

덕효 스님은 "교육은 힘들었지만 사람들과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며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명상과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 촉구

9월 9일, 601개 시민단체 회견
환경연대 등 불교단체 성명서도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고심하는 가운데 불교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종교·노동·인권 등 601개 시민사회단체는 9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강요를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릴레이 1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미국의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소속 원경 스님이 참석했다.〈사진〉

원경 스님은 "트럼프 압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호르무즈로 내보낼 수는 없다"며 "트럼프는 즉각 파병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환경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21개의 불교 단체들도 9월 15일 '살생의 길에 동참할 수 없다-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제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국군·군사 자산 파견 검토 중단 △미국의 파병·군사적 기여 요청 내용과 정부 검토 과정 공개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평화 노력 등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검증 없이 어떠한 형태의 파병에도 동의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현희 기자

'밀교의례 실행과 전개' 학술대회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 9월 29일
밀교의례 공법·만다라 등 발표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이 9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진각종 총인원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밀교의례의 실행과 전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밀교의례 공법에 대하여(혜안화 전수, 위덕대) △밀교의례 만다라 작법에 대하여(방정란, 경상국립대) △밀교의례 관정에 대하여(성제 정사, 위덕대) △밀교의례 티베트 호마의례에 대하여(박영빈, 밀교의례사업단 전임연구 △불복장의 만다라 정토(강다현, 위덕대)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임은호 기자